

경주 남산
가이드북 ⑤

경주남산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慶州南山研究所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CONTENTS

| | |
|-----------------------|----|
|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 3 |
| 쉽게 찾아가는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 4 |
| ①나정 / 창립사지 / 오릉 | 6 |
| ②월정교 | 8 |
| ③인용사지 | 8 |
| ④도당산 | 9 |
| ⑤천관사지 | 10 |
| ⑥남산신성 | 11 |
| ⑦서출지 | 12 |
| ⑧남악 | 13 |
| ⑨현강왕릉 | 14 |
| ⑩포석정 | 15 |
| ⑪심화령 | 16 |
| ⑫비파바위 | 18 |
| ⑬경흥우성 | 19 |
| ⑭남간사지 | 20 |
| ⑮금광사지 | 21 |
| ⑯국사방 | 21 |
| ⑰옹장사지 | 22 |
| ⑱천룡사 | 23 |
| ⑲염불사지 / 양피사지 | 24 |
| ⑳쑥두덤골 | 25 |
|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 26 |
|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 27 |



慶州南山研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Mt. Namsan in Gyeongju, Korea (THE RING)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이 경주 남산의 아름다움과 곳곳에
깃들여 있는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
을 널리 알리고, 유적을 보전하고 연구하며, 이을
러 남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
니다.

펴낸이 (사)경주남산연구소

www.kjnamsan.org

E-mail: kjnamsan@hanmail.net

경북 경주시 태종로 711번길 15(노서동)

Tel. 054-777-7142

Fax. 054-776-7142

펴낸날 2020년 4월 20일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창 054. 745. 5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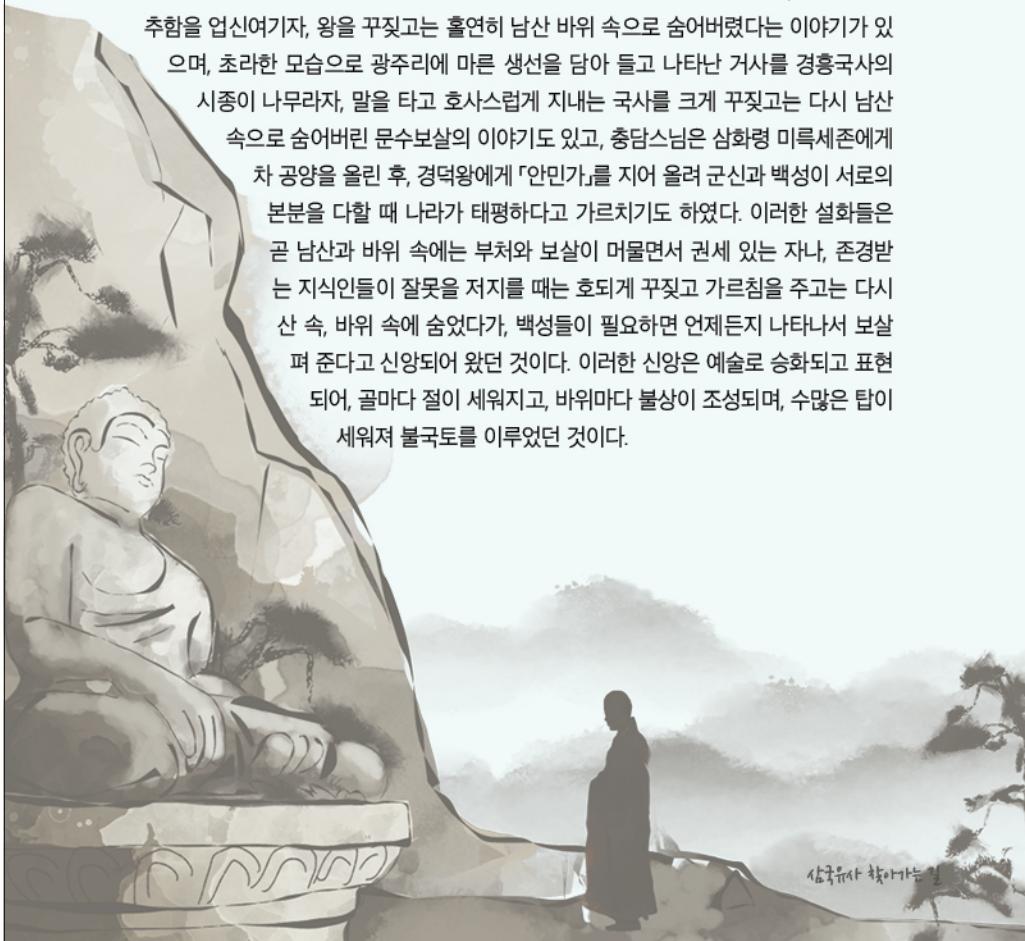
*이 안내책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남산은 불교유적의 보고이자 신라인들의 영산이며, 신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남산에는 온갖 전설이 남아 있고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역사의 산이며, 선조들의 숨결이 가득한 민족문화의 산실이다. 이 산 주변에는 신석기 말기부터 사람이 살았고, 박혁거세 거서간이 탄강한 나정과 초기 왕궁, 나을신궁, 왕릉이 즐비하며, 도성을 지켜온 남산신성을 비롯한 4곳의 산성과, 망국의 한이 서린 포석정지가 있어,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한 산이라 할 수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남산 속, 바위 속에는 신들이 머물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신
앙되었고,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산 속, 바위 속의 신들이 부처와 보살로 바뀌어 불교
의 성산으로 신앙되어 왔다. 이러한 신앙은 「삼국유사」에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비파바위의 부처님이 망덕사의 낙성재에 누추한 옷차림으로 참석하였는데, 왕이 그 누
추함을 업신여기자, 왕을 꾸짖고는 홀연히 남산 바위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
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광주리에 마른 생선을 담아 들고 나타난 거사를 경흥국사의

시종이 나무라자, 말을 타고 호스스럽게 지내는 국사를 크게 꾸짖고는 다시 남산
속으로 숨어버린 문수보살의 이야기도 있고, 충담스님은 삼화령 미륵세존에게
차 공양을 올린 후, 경덕왕에게 「안민가」를 지어 올려 군신과 백성이 서로의
본분을 다할 때 나라가 태평하다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화들은
곧 남산과 바위 속에는 부처와 보살이 머물면서 권세 있는 자나, 존경받
는 지식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호되게 꾸짖고 가르침을 주고는 다시
산 속, 바위 속에 숨었다가, 백성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보살
펴 준다고 신앙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예술로 승화되고 표현
되어, 골마다 절이 세워지고, 바위마다 불상이 조성되며, 수많은 탑이
세워져 불국토를 이루었던 것이다.



쉽게 찾아가는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동
북
서
남



나정/창림사지/오릉 ①

<신라시조 혁거세왕> 친한 땅에 여섯 마을이 있었다. 전한 지절 원년 임자(BC 69) 3월 초하루에 옥부의 조상들이 알천의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도 더 있는 사람을 찾아 군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여야 하지 않겠소!”하였다.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의 우물가에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리우고 흰 말 한 마리가 끓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 살펴보니 자줏빛 알 한 개가 있었다. 알을 깨어보니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동전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 춤을 했다. 이에 그 아이를 혁거세왕이라고 이름하고 호를 거슬한이라고 했다.

이날 사양리 알영정 우물가에 계룡(鷄龍)이나타나서 왼쪽 옆구리에서 계집아이를 낳았다. 얼굴과 모습이 매우 고왔으나 입술이 달 부리와 같았다. 이에 월성 북쪽 낮물에 목욕 시키니 부리가 떨어졌다.



📍나정(경주시 탑동 700-1)



📍창림사지(나정이나 포석정에서 도보 10분)

남산 서쪽 기슭(지금의 창림사이다)에 궁실을 짓고 성스러운 두 아이를 받들어 길렀다. 두 성인이 13살이 되던 오봉 원년 갑자(BC 57)에 남자는 세워서 왕으로 삼고 여자는 왕후로 삼았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되던 해 왕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뒤에 그 죽은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왕후도 세상을 떠났다. 나라 사람들이 합하여 장사지내려고 하니 큰 벌이 나타나 꽃아다니면서 방해 하므로 다섯 몸뚱이를 각각 장사지내어 오릉이 되었다. 또한 사릉이라고 하니, 담엄사 북쪽 능이 이것이다.

최근까지 소나무 숲 가운데 조그마한 비각이 하나 있었다. 그 뒤에 주춧돌로 보이는 네 개의 돌이 규칙적으로 사방에 둘러져 있었고, 가운데는 우물을 덮은 것으로 알려진 넓은 판석이 놓여있었다. 비석은 조선 순조 3년(1803)에 세워졌다. 2002년 나정의 비각을 다시 지으려고 일대를 발굴하면서 그동안 추정해온 나정의 신비로움이 실제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완전한 팔각형 기단을 갖춘 건물터(한 변 8m 정도, 지름 20m, 넓이 300 m²)와 그 주위를 둘러싼 4각의 담장 유구가 발견되었다. 팔각의 건물 유적과 우물 등이 있었다는 것은 이 곳이 제례 장소이며, 신궁으로 가장 중요시되던 공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신화로만 여겨졌던 신라 건국이 실존의 역사로 확인된 발굴이었다. 이 터에 신궁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오릉(경주시 탑동 231-1)



월정교 ②

<원효불기> 스님이 어느 날 거리에서 노래 부르기를,
누가 자후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 주겠는가.
하늘 받침 기둥을 짓으니.

사람들은 아무도 그 노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때 태종이 노래를 듣고 “스님이 귀부인을 얻어서 귀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혼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하고는, 요석궁에 과부 공주가 있었는데 왕이 궁리에게 명하여 원효를 찾아 대례기라 했다. 궁리가 명을 받아 원효를 찾으니 그는 이미 남산에서 내려와 문천교를 건너고 있었다. 원효는 일부러 물에 빠져서 옷을 젖혔다. 궁리가 원효를 찾으니 그는 이미 남산에서 내려와 문천교를 건너고 있었다. 원효는 남산에서 대안대사에게 법을 물으며 어울려 지냈다. 요석궁으로 들 때는 문천교를 지났다. 문천교(유교)는 지금의 월정교 19m 아래에서 유적이 확인되었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도보 1분

인용사지 ③

<문무왕 법민> 인문이 옥중에 있을 때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절을 지어 인용사라 하고 관음도량을 열었는데 인문이 돌아오다 바다 위에서 죽으니 미타도량으로 고쳤다. 지금까지도 그 절이 남아 있다.

김인문(629~694)은 문무왕의 동생으로 22년 동안 당나라에서 외교활동을 펼치며 숙위(宿衛)하였다. 신라와의 싸움에서 패한 당 고종이 인문을 옥에 가두니 왕은 강수를 시켜서 석방해 달라는 글을 지어 당 고종에게 보냈다. 고종은 애절한 그 글을 읽고 눈물을 적시면서 인문을 방면하였다. 인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인용사를 짓고 관음도량을 열었다. 인문이 귀국 도중 바다 위에서 죽어 미타도량으로 고쳐 왕생극락을 빌었다하니, 인용사는 신라인들의 눈물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절이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기의 쌍탑기암으로 확인되었고 인용사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절 앞 연못에서는 연꽃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인왕동 사지로 이름을 바꾸었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도보 5분

도당산 ④

<진덕왕> 왕의 시대에 알천공·임종공·술종공·호림공·영장공·유신공이 남산 우지암에 모여 나랏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큰 범 한 마리가 좌중에 뛰어들었다. 모두가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범의 꼬리를 잡아 땅에 메꿔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아 윗자리에 앉았으나 여러 공들은 유신공의 위엄에 감복했다. 신라에는 네 곳의 신령스러운 땅이 있어 나라의 큰일을 의논할 때 그곳에 모여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 첫째는 동쪽의 청승산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자산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천이요,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이다.

<태종춘추공> 허음에 보희가 꿈에 서악에 올라 오줌을 누는데 서울 안에 가득 찼다. 이튿날 아침에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는 꿈을 팔았다. 열흘 뒤 정월 오기일에 유신이 춘추공과 함께 집 앞에서 공을 칼었다. 유신은 일부러 춘추의 옷을 벗어서 옷끈을 떨어뜨리고 겁에 들어가서 보희에게 옷을 꿰매 드리라 하니 사양했다. 유신은 문희에게 명했다. 춘추공은 유신의 뜻을 알고 문희와 정을 통하고 자주 왕래했다. 유신은 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온 나라 안에 말을 펴뜨려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인다고 했다. 어느 날 선덕왕이 남산에 거동한 틈을 타서 마당에 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질러 연기가 일어나자 왕이 비라고 무슨 예기냐고 물으니 좌우에서 “유신의 누이가 남편도 없이 임신한 때문이라”고 했다. 이때 춘추공이 왕을 모시고 있다가 얼굴빛이 몹시 변했다. “그것은 너가 한 짓이니 빨리 가서 구하도록 하라.”고 하니, 춘추공은 명을 받고 말을 달려 왕명을 전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고 후에 버젓이 혼례를 올렸다.

도당산이 우지암으로 추정되며 신라 때는 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남산에 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혈연관계를 맺기 위하여 계책을 세웠으며, 이후 문희는 보랑공주의 죽음으로 정궁이 되었고, 이때 밴 아이가 문무왕이다. 화백정에 오르면 월성과 재매정·월정교를 비롯한 서라벌 모두가 눈 아래 굽어보인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도보 10분



천관사지 ⑤

36대 혜공왕 16년(780)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상대등이던 김양상과 김경신이 난을 진압하였으나 왕은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선덕왕(780~785)이다.

<원성대왕> 이찬 김주연이 처음에 상재(上宰)가 되고 왕은 각간으로서 이재(二宰)에 있었는데, 꿈에 복두를 벗고 흰 것을 쓰고 12현금(거문고)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점을 치기 했더니 “복두를 벗은 것은 벼슬을 잊을 징조요, 현금을 든 것은 목에 칼을 쓸 징조요,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옥에 간힐 징조입니다.”라고 했다. 왕은몹시 근심하여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다. 이때 아찬 여성이 와서 빙기를 청했으나 왕은 병을 피하고 나오지 않았다. 아찬이 다시 청하여 빙기를 원하므로 왕이 허락하니 아찬이 물었다. “공께서 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꿈을 섬겼던 일을 말하니 아찬이 일어나서 절하고 말하기를 “이는 좋은 꿈입니다. 공을 위해서 꿈을 풀어 보겠습니다.” 왕이 좌우를 물리고 해몽을 청하니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앉는 이가 없음이요, 흰 것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요, 12현금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이어갈 징조요, 천관사 우물에 들어간 것은 궁궐에 들어갈 상서로 웅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위에 주연이 있는데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다 말이오?” 아찬이 “비밀히 북천신에게 제사지내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이에 떠났다. 얼마 후 선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 사람들은 주연을 왕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의 집이 하천 북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낫들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이에 왕이 먼저 궁에 들어가 왕위에 오르자 대신들이 모두 와서 따르고 새 임금에게 축하를 드리니 이가 원성대왕이다.

이후 멀망때까지의 18왕들은 모두 대왕의 후손이었으니 꿈의 응험이었다.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있던 천관사는 발굴조사하고, 특이한 모습(이중기단에 팔각 탑신과 옥개석)의 삼층석탑을 복원하였다. 천관사는 김유신이 어릴 때 사귀던 기생 천관의 집을 고쳐 지은 절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그것은 고려시대 이인로의 「파한집」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다. 천관사는 신라 때 나라의 제례의식을 하던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도보 7분



남산신성 ⑥

<문무왕법민> 왕이 처음 즉위하여 남산에 장창을 설치하니 길이가 50보, 너비가 15보로 미국과 병기를 쌓아 두니 이것이 우창이요, 천은사 서북쪽 산 위에 있는 것은 좌창이다. 다른 책에는 건복 8년 신해(591)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2,850보라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평왕대에 처음 쌓았다가 이때에 중수한 것이다.

<혜공왕> 4년(768) 7월 3일에 대공 각간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울과 오도 주군의 96각간이 서로 싸워 크게 어지러웠다. 대공 각간의 집이 망하자 그 집의 재산과 보물·비단 등을 모두 왕궁으로 옮겼다. 신성의 장창이 불에 탔다. 사량리·모양리에 있던 역적들의 보물과 곡식을 왕궁으로 실어 날랐다. 난리가 석달만에 멈으니 상을 받은 사람도 많았고 죽임을 당한 자는 셀 수도 없었다.

26대 진평왕 13년(591)에 처음 쌓았던 남산신성은 4850m가 확인되었고 지금도 곳곳에 벽돌처럼 쌓은 성벽이 남아 있다. 문무왕 때 장창을 설치하고 혜공왕 4년(768)에 불탔다. 장창은 그 위치와 빙터에서 발견된 화려한 막사기와 등으로 보았을 때 통일된 왕국의 위엄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우창 터에는 이 때 타다 숙이 된 탄화미가 나오고 있다.

📍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등산 30분



서출지(書出地) ⑦

통일전주차장 남쪽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 배롱나무 붉은 꽃과 연꽃이 만발할 때 남산과 함께 바라보는 이요당(二樂堂)의 경치는 한 폭의 그림 같다. 이 연못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사금갑> 21대 비천왕(소지왕) 즉위 10년(488) 왕이 천천정에 행차할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읊었다. 쥐가 사람의 말로 “이 까마귀 가는 곳을 찾아 가 보시오.” 하였다. 왕은 기사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였다. 남산 동쪽 기슭 피uron에 이르러 돼지 두 마리가 써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까마귀가 날아간 곳을 끓어버렸다. 길가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 늙은이가 못 속에서 나와 글을 읊으니, 겉봉에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기사가 돌아와서 바치니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 떼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겠다.” 하니, 일관이 아뢰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라 하였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봉투를 열어 보니 「거문고갑을 쏘라」고 쓰여 있었다. 궁중으로 돌아와 거문고갑을 쏘니 내전의 분향수도승과 궁주가 물래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형하였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 상해(上亥)-상자(上子)-상오(上午) 등 일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각려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정월 16일을 오기일이라 하여 칠밥을 지어 제사 지내니 지금까지도 이를 행하고 있다. 이후 뜻을 서출지라고 이름 하였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전통적인 토속 신앙과 신흥종교의 갈등, 불교의 수용을 둘러싼 신라 왕실과 귀족 집단의 대립, 내지는 소지왕에 반대하는 왕실 내부 세력에 대한 제거를 상징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연못에 1664년 임적선생이 이요당을 짓고 연꽃과 배롱나무를 심어 자연을 즐기며 선비의 고고한 심성을 수련했다. 봄에는 매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이 어우러지고, 여름에는 백일홍과 연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나무 잎과 단풍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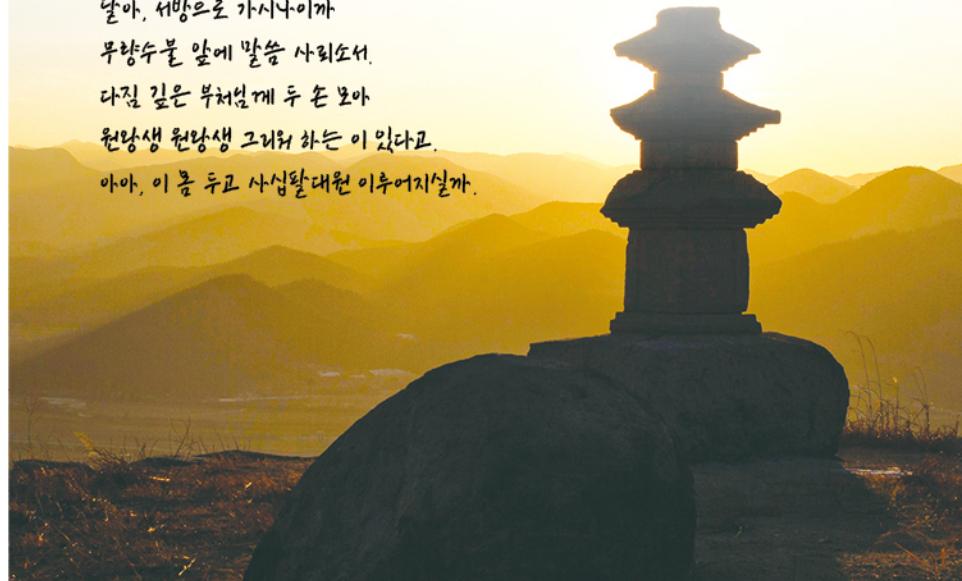
통일전주차장(경주시 칠불암길 6)



남악(南岳) ⑧

<광덕 엄장> 문무왕 때 사문 광덕과 엄장은 서로 사이가 좋아 밤낮으로 약속하기를 “먼저 극락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알리도록 하자.”고 하였다. 광덕은 신 삼는 것으로 업을 삼아 저자를 데리고 분황서리에 숨어 살았고, 엄장은 남악에 암자를 짓고 씨 뿌리고 농사 지으며 살았다. 어느 날 해 그림자가 붉은 빛을 띠고 소나무 그늘이 고요히 저물어가는데 창밖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서쪽으로 가니 그대는 잘 살다가 속 히 나를 따라오라.” 엄장이 문을 밀치고 나가 보니 구름 밖에서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밝은 빛이 땅에 드리워 있었다. 다음날 광덕이 사는 곳을 찾아갔더니 광덕은 과연 죽어 있었다. 그의 아내와 유해를 거두어 장사 지내고 부인에게 말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광덕의 아내도 좋다고 하여 그 집에 머물렀다. 밤에 자면서 정을 통하여 하자 부인이 꾸짖어 말하기를 “스님께서 정토를 구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물리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장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광덕도 이미 그러했거니 나 또한 어떻겠소?”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은 나와 함께 십여 년을 같이 살았지만 일찍이 하룻밤도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거늘 어찌 물을 더럽혔겠습니까. 매일 밤 단정히 앉아서 한결같은 소리로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또 혹은 십육관을 만들어 그 관이 무르익고 밝은 달이 창에 비치면 때때로 그 빛에 올라 가부좌하였지요. 정성을 기울임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서방정토로 가지 않으려고 한들 어디로 가겠습니다마. 대개 천리를 가는 사람은 그 첫걸음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인니 지금 스님의 하는 일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지 서방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엄장은 부끄러워 물러나 원효법사의 처소로 가서 수행의 요점을 간곡하게 구했다. 원효는 생관법을 만들어 그를 이끌어 주니, 엄장은 이에 몸을 깨끗이 하고 뉘우쳐 스스로 꾸짖고 한 마음으로 관을 닦으니 역시 서방정토로 가게 되었다. 광덕에게는 일찍이 노래가 있었다.

달아, 서방으로 가시나이까
무량수불 앞에 말을 사리소서.
다진 깊은 부처실개 두 손 모아
원왕생 원왕생 그리워 하는 이 있다고.
아아, 이 봄 두고 사십활대원 이후어지실까.



현강왕릉 ⑨



<처용강 망해사> 49대 현강대왕 때에는 서울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연이어져 있고 초가는 없었다. 노래 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웠다. 어느 날 대왕이 개운포에서 놀다가 돌아가려고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서 길을 잃었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좌우에 물으니 일관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 용의 조화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해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왕은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짓게 명했다. 왕의 명이 내리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으므로 그곳을 개운포라 했다. 동해 용은 기뻐서 아들 일곱을 데리고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여 품을 주고 음악을 연주했다.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가서 왕의 정사를 도우니 처용이다. 왕은 아름다운 여자로 처용의 아내를 삼아 머물러 있도록 하고 또 급간이라는 관직까지 주었다. 아내가 무척 아름다워 역신이 흄모하여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물래같이 잤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품을 추면서 물러났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섣불 밟은 달에 밭들이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가랑이 벗일려.
둘은 새해이고 둘은 뉘해인고.
본디 새해지만 뱃아간을 엿더히꼬.

그때 역신이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어 끓어앉아 말했다. “내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이제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은 노여워하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이저부터는 공의 모습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그려 붙여서 죽된 고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현강왕의 시대(875~886)는 신라 말의 태평성대였다. 서울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들은 연이어져 있고, 초가는 없었다. 숯으로 밥을 짓고, 풍악과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비와 바람이 사철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어 먹을 것은 넉넉하고, 변경은 평온하여 백성들은 널리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진성여왕 3년(889)에는 지방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후삼국의 시대가 열리고, 경순왕 9년(935)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포석정 ⑩

<처용강 망해사> 왕이 또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신이 왕 앞에 나타나 품을 추었는데 좌우에서는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신이 나타나 앞에서 품을 추니 왕도 품을 추면서 혼상을 보였다. 신의 이름을 상심이라고도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은 이 품을 전해서 어무상심 또는 어무산신이라 한다.

<김부대왕> 56대 김부대왕의 시호는 경순이다. 천성 2년 정해(927) 9월에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침범해서 고을부(영천)에 이르니 경애왕은 우리 태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굳센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구하게 했으나 구원병이 도착하기 전에 견훤은 11월에 서울로退回하였다.

이때 왕은 비빈 종척들과 포석정에서 잔치를 열고 즐겁게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적병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다가 칭줄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과 비는 달이나 후궁으로 들어가고 종척 및 공병대부와 사녀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다가 적에게 사로잡혔으며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땅에 엎드려 노비가 되기를 빙었다. 견훤은 군사를 놓아 공사간의 재물을 약탈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거쳐왔다. 이에 좌우 사람들은 사서 왕을 찾기 위해 허니 왕은 비첩 옆명과 후궁에 숨어 있었다. 군중으로 잡아다가 억지로 자결하여 죽게 하고 왕비를 옥보였으며 부하들을 놓아 왕의 빙첩들을 모두 옥보였다. 왕의 죽제인 김부를 세워 왕으로 삼으니 왕은 견훤이 세웠다. 왕위에 오르자 견훤이 시신을 서당에 안치하고 여러 신하들과 함께 통곡했다.

위 이야기는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역사의 왜곡으로 보인다. 적군이 곧 들이닥칠 급박한 상황에서 이웃 나라에 구원을 요청하고, 겨울에 야외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화랑세기』에 의하면, 포석정은 호국신을 모시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경애왕도 이곳에서 호국신에게 제사지내고 기도하다 견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 것이리라. 구불구불한 돌 흥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 위에 술잔을 띄웠다는 것은 제례 의식을 행하던 것으로 추정 될 수 있다.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삼화령 ⑪



<생의사 석미륵> 선덕왕 때에 석 생의는 도중사에 살았다. 꿈에 한 스님이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묶어 표를 하게 하고 남쪽 골짜기에 와서 “내가 이곳에 묵혀 있으니 스님이 깨내어 고개 위에 옮겨 주시오”하였다.

꿈에서 깨자 그는 벗과 함께 표해 놓은 곳을 찾아 땅을 파니 돌미륵이 나왔으므로 삼화령 위로 옮겨 놓았다. 선덕왕 13년(644) 그곳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뒤에 생의사가 했다. 총당스님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서 공양한 분이 바로 이 부처다.

<경덕왕 총당사 표훈대덕>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765)에 오악삼산의 신들이 때때로 나타나 대궐 뜰에서 왕을 모셨다. 3월 3일 왕이 괴정문 누에 올라 좌우에 말하기를 “누가 길에서 위엄과 풍모를 갖춘 스님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하였다. 이때 마침 위의가 있고 깨끗한 대덕 한 분이 길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스님을 왕에게 데려 오니 왕이 “내가 말하는 위의 있는 스님이 아니다”하고 돌려보냈다. 다시 한 스님이 있었는데 허술한 옷을 입고 앵통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왕이 보고 기뻐하여 누각 위로 막이하였다. 통 속을 보니 차를 다리는 도구가 들어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총당입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오?”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올리는데 지금도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차 한 잔 나누어 주겠는가.” 스님이 이내 차를 달여 드리니 차 맛이 이상하고 찻잔 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북받쳐 오른다. 왕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들으니 스님의 기파장을 친미한 사노가가 그 뜻이 무척 높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릴 노래를 지어 주시오.” 하니, 이내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은 아름답게 여겨 그를 왕사로 봉하니 스님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 전삼화령 : 월정교 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등산 2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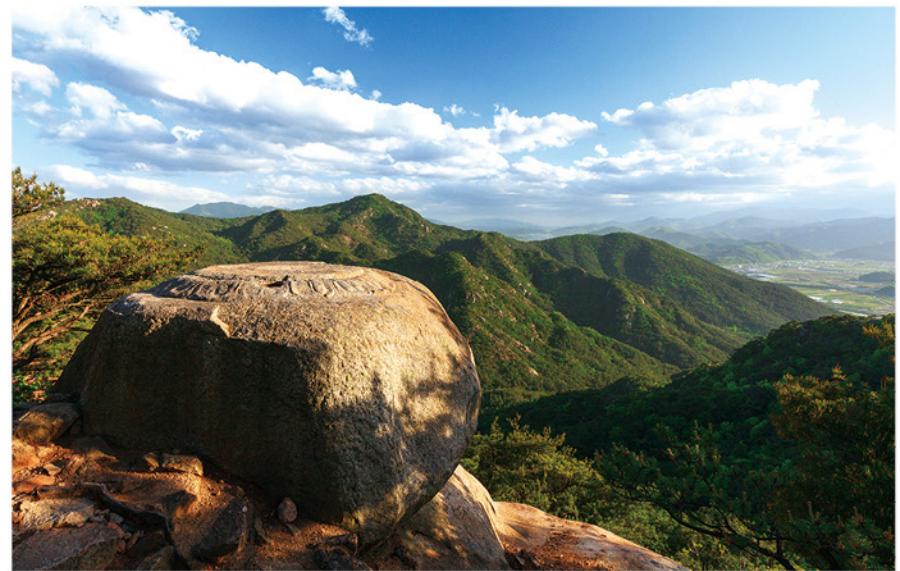
안민가는 이러하다.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면
백성이 사랑받을을 알리라.
꾸물거리면서 사는 물생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생각하면
나라 안이 되어 갈는 알리라.
아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은 태평하리이다.

<빈녀양모> 효종왕이 남산 포석정 혹은 삼화수리에서 놀고자 하니 문객들이 모두 급히 달려왔으나 오직 두 사람만이 뒤늦게 오므로 효종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

이 곳은 1923년 석조여래의상이 발견되었고, 황수영선생에 의해 삼화령 미륵세존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남산에는 또 한 곳의 삼화령으로 알려진 곳이 있으니, 용장계곡 능선에 있는 대연화대(직경 219cm)이다. 이곳에 오르면 북쪽과 동쪽으로는 서라벌과 토함산이 발아래 굽어보이며, 서쪽으로는 단석산이 건너 보이고, 가암들이 발아래 펼쳐져 있다. 빈녀양모 편에서 보듯이, 삼화령 또는 삼화수리는 화랑들의 심신단련장으로도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효종왕은 56대 경순왕의 아버지다.

📍 대연화대 : 통일전주차장(경주시 칠불암길 6)에서 등산 1시간 20분



비파바위 ⑫

<진신수공> 장수 원년 임진(692) 효소왕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망덕사를 세워 당나라 황실의 복을 받들었다. 그 후 경덕왕 14년(755)에 망덕사 탑이 혼돌리더니 이 해에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당나라 황실을 위하여 이 절을 세웠으니 마땅히 그 영향이 있는 것이다.”하였다. 6년(697) 낙성회를 열고 왕이 친히 공양하는데 한 비구가 몹시 누추한 모습으로 몸을 웅크리고 끝에 서서 청했다. “빈도도 이 재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왕은 허락하여 상 끝에 앉게 했다. 재가 끝나자 왕은 그를 회통하여 말했다. “어디 사는가?” “비파바워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제 가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국왕이 친히 올리는 재에 참석했다고 말하지 말라.” 스님은 웃으면서 “폐하께서도 역시 사람들에게 진신 석가를 공양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마치자 몸을 솟구쳐 남쪽을 향하여 날아갔다. 왕이 놀랍고 부끄러워 동쪽 언덕에 달려 올라가서 간 곳을 향해 절하고 사람을 시켜 찾거니 남산 삼성곡 쪽은 대적전원에 이르러 지팡이와 바리때를 놓고 숨어 버렸다. 사자가 와서 북명하니 왕은 비파바워 밑에 석가사를 세우고 그 자취가 숨은 곳에 불무사를 세워 지팡이와 바리때는 두 곳에 나누어 두었다. 두 절은 지금도 남아 있으나 지팡이와 바리때는 없어졌다.

남산 바위 속에 계시던 부처님이 효소왕에게 백성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또다시 남산 바위 속으로 숨어 버린 이야기이다. 골짜기에는 비파바워와 석가사지, 불무사지가 확인되었고, 무너진 삼층석탑 2기가 훌어져 있다.

📍비파마을(경주시 앞비파길 35)에서 등산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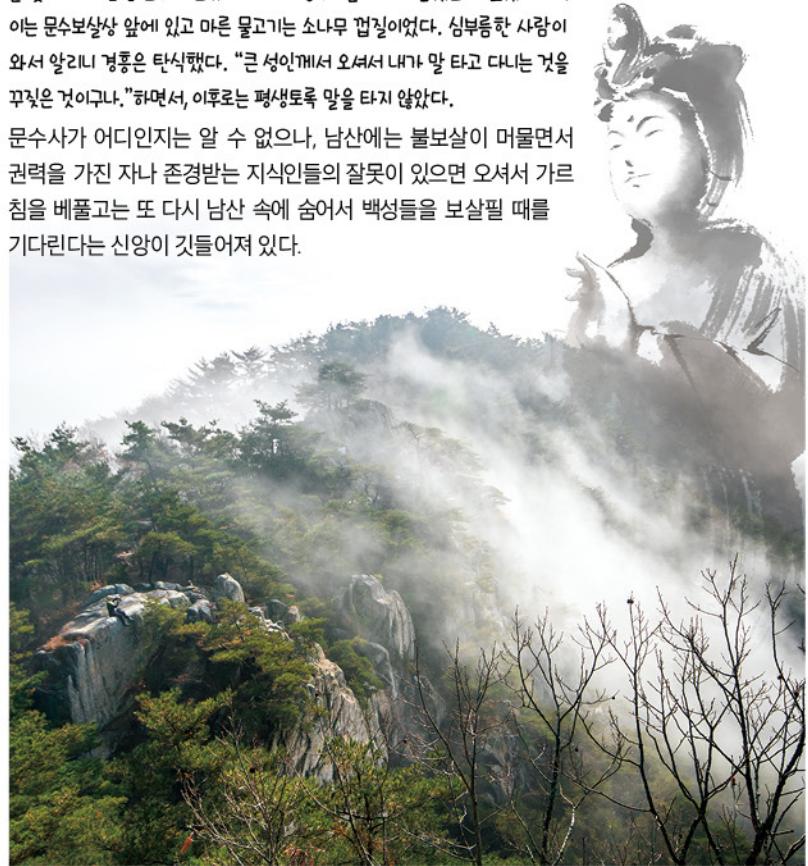


경흥우성 - 경흥이 성인을 만나다 ⑬

<경흥우성> 신문왕 때 대적 경흥의 성은 수씨이며 웅천주 사람이다. 나이 열여덟에 출가하여 삼장을 통달하니 명망이 일시에 높아졌다. 개요 원년(681) 문무왕이 장차 승하하려고 할 때 신문왕에게 유언으로 말하기를 “경흥법사는 국사가 될 만하니 내 명을 잊지 말라.”하였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국로로 삼아 삼강사에 머물게 했다. ...

경흥이 어느 날 대궐에 들어가려 하자 시종하는 이가 동문 밖에서 먼저 채비를 차리니 말과 안장이 매우 화려하고 신과 갓도 제대로 갖추었으므로 길 기던 사람들은 길을 비켰다. 그 때 한 거사가 불품없는 모습으로 손에는 저팡이를 짚고 등에는 광주리를 지고 와서 하마대 위에서 쉬고 있는데 광주리 속을 보니 마른 물고기가 있었다. 시종하는 이가 꾸짖기를 “너는 수행자의 옷을 입고 어찌 더러운 물건을 지고 있느냐.”하였다. 거사가 말하기를 “두 다리 사이에 산고기를 끼고 있는 것보다 시장의 마른 고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허물이 되겠는가?” 말을 마치자 일어나 가버렸다. 경흥은 문을 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그를 쫓아내니 남산 문수사 문밖에 이르러 광주리를 버리고 숨었는데 짚었던 저팡이는 문수보살상 앞에 있고 마른 물고기는 소나무 껌질이었다. 심보름한 사람이 와서 알리니 경흥은 탄식했다. “큰 성인께서 오셔서 내가 말 타고 다니는 것을 꾸짖은 것이구나.”하면서, 이후로는 평생토록 말을 타지 않았다.

문수사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산에는 불보살이 미물면서 권력을 가진 자나 존경받는 지식인들의 잘못이 있으면 오셔서 가르침을 베풀고는 또 다시 남산 속에 숨어서 백성들을 보살필 때를 기다린다는 신앙이 깃들어져 있다.



남간사지 ⑯

<원종홍법 영축열신> 원화 연간에 남간사의 사문 일념이 죽향분예불결사문을 치었는데 이 사실이 자세히 실려 있으니 ...

법흥왕 14년(527) 왕이 불법을 크게 일으키고 이차돈이 순교한 내용을 남간사의 승려 일념이 원화(806~820) 연간에 이차돈의 무덤에 향을 피워 예불을 올리는 모임을 결성하고 결의문을 지어 비를 세웠는데 비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는 기록이다.

<혜통항룡> 석 혜통은 그 씨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백의로 있을 때 그의 집은 남산 서쪽 기슭인 은천동 어귀(지금의 남간사 동리)에 있었다. 어느 날 집 동쪽 시내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그 뼈를 동산 안에 버렸다. 이를 날 새벽에 그 뼈가 없어졌으므로 펫자국을 따라 찾아가니 뼈는 전에 살던 굴로 돌아가 다섯 마리의 새끼를 앗고 꾸그리고 있었다. 한참이나 바라보고 이상히 여겨 감탄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름을 혜통으로 바꿨다.

위 기사로 보아 남간사는 31대 신문왕 이후, 41대 헌덕왕대 이전에 창건된 것을 알 수 있다. 남간마을 곳곳에 절터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목탑터, 석탑재, 하수구, 팔각대석, 주춧돌, 장대석들이 흩어져 있으며, 신라 때부터 최근까지 사용되던 우물이 있고, 마을의 남쪽 들판에는 남산에서 유일한 당간지주가 우뚝 서 있다. 당간지주에서 바라보는 절터는 그 옛날 이 절이 얼마나 웅장하였는지 실감나게 한다.

경주시 남간길 65



금광사지 ⑰

<명랑신인> 「금광사 본기」를 살펴보면, “법사 명강이 신라에 태어나서 당나라로 건너가 도를 배우고 돌아오는데 바다 용의 청에 의해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얻하고 황금 1,000냥을 보시 받아 땅 밑으로 몰래 와서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숏아나왔다. 이에 자기 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고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장식하니 유난히 광채가 났다. 그 때문에 절 이름을 금광사라고 했다.”



나정 남쪽 200여 m 거리에 있는 이곳은 금광제라는 저수지가 있었으나, 1966년 둑을 헐고 농경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석재들과 불상이 발견되어 절터로 확인되었으며, 저수지의 이름으로 보아 금광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나정(경주시 탑동 700-1) 앞 들

국사방 ⑱

<영여사> 실제사의 석 영여는 씨족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덕과 행실이 모두 높았다. 경덕왕이 맞아 공양을 드리려고 사자를 보내서 부르니, 영여는 대궐 안에 들어가 재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왕은 사자를 시켜 그를 절에까지 모시도록 했다. 그는 절 문에 들어서자 즉시 슬어 버려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사자가 와서 아뢰니 왕은 이상히 생각하고 그를 국사에 봉했다. 그 뒤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도 국사방이라고 부른다.



동남산에 국사골이 있다. 이 골짜기에 세 곳의 절터가 있고, 그 한 절터에 삼층석탑이 복원되어 있다. 명칭으로 볼 때 이 골짜기 어딘가 국사방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48대 경문왕 때 최광유의 시 「포석정주악사」에 “기원 실제 두절이 동서로 있는데, 그 가운데 포석정이 있다네”라는 구절이 있어 국사방이 포석정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통일전주차장(경주시 칠불암길 6)에서
등산 30분

용장사지 ⑯

<현유가 해화엄> 유가종의 조사 대덕 대현은 남산 용장사에 살았다. 절에는 돌로 만든 미륵장육상이 있었다. 대현은 항상 장육상을 둘았는데 불상도 역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들렸다. 대현은 슬기롭고 분명하고 정밀하고 민첩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명백했다. 대개 법상종의 경론은 그 뜻과 어긋나 그윽하고 깊어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중국의 명사 백거이도 일찍이 이것을 연구하다가 다 알지 못하고 말했다. “유식은 뜻이 그윽하여 알기 어렵고, 이명학은 분석해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 학자들이 배우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대현은 홀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잠시 사이에 그윽하고 깊은 뜻을 터득하여 능란하게 분석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후학들은 모두 그 가르침에 따랐고, 중국의 학자들도 간혹 이것을 얻어 안목으로 삼았다.

정덕왕 12년(753) 여름에 가뭄이 심하니 대현을 대궐로 불러들여 『금광명경』을 강의하여 단비를 빌기 했다. 어느 날 재를 옮리는데 바루를 열어 놓고 한참 동안 있었으나 정수를 옮기는 것이 늦어 감독하는 관리가 꾸짖었다. 공양하는 이가 말하기를 “대궐 안 우물이 말라서 먼 곳에서 길어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대현은 그 말을 듣고 “왜 진작 말 하지 않았는가”하였다. 날에 경을 강의 할 때 향로를 받들고 묵묵히 있더니 잠깐 사이에 우물물이 일곱길이나 솟아올라 찰당과 가지런하게 되니 궁중이 모두 놀랐다. 이로 인해 그 우물을 금광정이라 했다. 대현은 일찍이 스스로 청구사문이라 일컬었다.

용장사지에는 계곡에 넓은 절터와 축대가 삼단으로 남아있고, 능선에는 무너진 삼층석탑 1기, 삼층석탑 1기, 마애여래좌상 1구, 삼륜대좌의 불상 1구가 남아 있다. 이중 삼륜대좌불은 머리 없는 높이 460cm로서 위 이야기의 석조미륵장육상으로 추정된다.

📍 용장 주차장(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에서 등산 50분



천룡사 ⑰

<천룡사> 동도의 남산 남쪽에 봉우리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데 고위산이라 한다. 산의 남쪽에 절이 있는데 속칭 고사 또는 천룡사라고 한다. 『토론삼학집』에 “계림에는 두 줄기의 객수와 한 줄기의 역수가 있는데 그 역수와 객수의 두 균원이 천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천룡사가 뒤집혀 무너지는 재앙에 이른다.” 속전에 “여수는 고을의 남쪽 마등오촌 남쪽을 흐르는 내가 이곳이다”고 하였다. 또 이 물의 균원이 천룡사에 이른다고 하였다. 중국 사신 악봉구가 보고 말하기를 “이 절이 부서지면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고 하였다. 또 전하는 말에 “옛날 신도에게 두 땔이 있어 천녀·용녀라 하였는데 양친이 두 땔을 위해 설을 세우고 이로 인하여 절 이름으로 삼았다.” 이곳은 경지가 이상하고 불도를 드는 곳이었는데 신라 말에 부서진지 오래되었다. 중생사 관세음보살이 절을 먹여 키운 흔은함의 아들 승로가 숙을 낳고, 숙이 시중 제안을 낳았는데 제안이 중수하여 일으켰다. 인하여 석가마일도당을 설치하고 조정의 명을 받았으며 경하여 신서와 원문까지 절에 남겨 두었다. 그는 죽어서 절을 지키는 신이 되었는데 자못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을 많이 나타내었다.

494m 높이의 고위산 아래 넓은 고원에 자리 잡고 있는 천룡사에는 9세기의 삼층석탑과 석등대식, 귀부, 석조, 맷돌, 부도 등 수 많은 석조유물이 남아 있다.

천룡사는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서는 「천룡사는 고위산에 있다」고 했고, 1688년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에는 「천룡사 개간」이라 했으며, 정시 한은 『산중일기』에서 1688년 5월 17일 이 절에서 하루 밤 묵은 일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발굴조사 때 발견된 기와조각과 시인 묵객들의 시문으로 보아 신라 때부터 19세기 말까지 법등이 계속 이어져 웎음을 알 수 있다.

📍 용장 주차장(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에서 등산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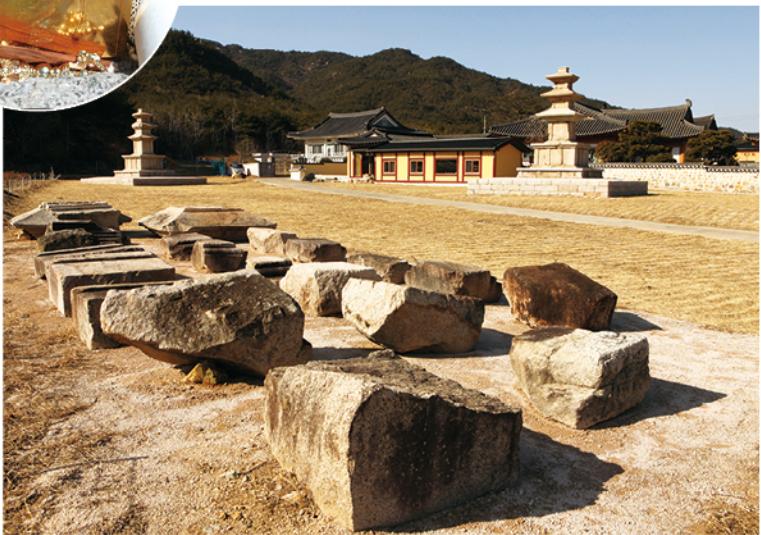
염불사지/양피사지 ^⑯



<염불사> 남산 동쪽 기슭에 피리촌이 있고 촌에는 절이 있는데 피리사라 했다. 절에는 이상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항상 아미타불을 염불하는데 그 소리가 성 안에까지 들려 360방 17만호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염불소리는 높고 낮음이 없이 낭랑하여 한결 같았다. 이로써 그를 이상히 여겨 공경치 않는 이가 없었고 모두 그를 염불스님이라 불렀다. 그가 죽은 뒤에 흙으로 상을 만들어 민장사에 모시고 그가 본래 살던 피리사는 염불사로 이름을 고쳤다. 이 절 옆에 또한 절이 있는데 이름을 양피사라 하였으니 마을 이름을 따서 얻은 이름이다.

폐허가 되어 있던 절터에 2009년 쌍탑의 삼층석탑을 복원할 때 스리랑카 종교부장관이 친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봉안하였다.

📍염불사지(경주시 칠불암길 125)



쑥두덤골 [㉐]

<선을환생> 망덕사의 스님 선율은 시주받은 돈으로 『육백반야경』을 이루고자 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음부의 사자에게 꽂겨서 명부에 갑혀았다. “너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선율이 “저는 만년에 『대품반야경』을 만들려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왔습니다.” 명부의 관리가 “너의 수명록에 의하면 수명은 이미 다되었지만 좋은 소원을 마치지 못했다니 다시 돌아가서 보배경전을 이루도록 하라.” 하고 돌려보냈다. 도중에 여자 하나가 울면서 앞에 와 절을 하며 말하기를 “저도 남염주의 신라 사람이온데 부모가 금강사의 밭 1묘를 물려 빼앗은 일에 연루되어 명부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고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돌아가시거든 우리 부모에게 알려서 속히 그 밭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저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상 밑에 묻어 두었고 곱게 짠 베도 침구 사이에 강추어 두었습니다. 부디 그 기름을 가져다가 불등에 불을 켜고 베는 팔아 경쪽으로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뇌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그대의 집은 어디 있는가.” 하니 “사량부 구원사 서남쪽 마을입니다.” 선율이 이 말을 듣고 가려는데 깨어났다. 이 때 선율은 죽은 지 이미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장사지 냈으므로 무덤 속에서 사흘이나 외쳤다. 목동이 듣고 절에 가서 알리니 절의 스님이 와서 무덤을 파고 그를 깨냈다. 선율은 그 동안의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자는 죽은 지 15년이 되었으나 참기름과 베는 완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선율이 여자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어 주니 여자의 영혼이 찾아와서 “스님의 은혜를 입어 저는 이미 고뇌를 벗어났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고 감동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리하여 서로 도와서 『반야경』을 완성시켰다. 그 경전은 지금 동도의 승사하고 안에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에는 돌려 읽어 재앙을 물리쳤다.

신라 때는 승려의 장례를 매장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곳이 염불사지 주변의 쑥두덤골이 아닌가 추정해 볼 따름이다.

📍양피사지(경주시 남산동 226-2)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 코스 | 연중 시행 | | | | 3~11월 시행 | | | |
|-----|-----------------|-----------------|-----------------|-----------------|-----------------|-----------------|-----------------|-----------------|
| | 삼릉골 | 남산탐방길 | 동남산 | 서남산 | 남남산 | 삼릉골단축 | 삼릉 가는 길 | 동남산산책 |
| 시간 | 09:30 ~13:30 | 09:30 ~16:00 | 09:30 ~16:00 | 09:30 ~16:00 | 09:30 ~16:00 | 13:30 ~16:30 | 09:30 ~13:30 | 09:30 ~13:30 |
| 1 토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2 토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3 토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4 토 | ● | | | | | ● | | ● |
| 일 | ● | | | | | | | |
| 5 토 | ● | | | | | ● | ● | |
| 일 | ● | | | | | | | |
| 공휴 | ● | | | | | | | |
| 출발지 | 서남산 주차장 | 월정교 주차장 | 통일전 주차장 | 서남산 주차장 | 서남산 주차장 | 서남산 주차장 | 월정교 주차장 | 통일전 주차장 |

- [삼릉골단축], [삼릉가는길], [동남산산책]은 3월~11월까지 운영합니다.
- 여름방학 기간에는 주중에도 매일 운영합니다.
- **방학 중 월·수·금 : 남산탐방길(단축 코스)**
- **방학 중 화·목 : 삼릉골 코스**
- **남산달빛기행(별도안내)**
- 모든 답사는 참가비 무료이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해설합니다.
- 모든 답사 프로그램은 답사 전날까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사)경주남산연구소 홈페이지(www.kjnamsan.org)에서 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는 보다 세부적인 일정과 운영시간 등이 공지됩니다.
- 문의 : 경주남산연구소 (054-777-7142)
- 제공 : 전문해설사 동행 해설, 남산지도, 기념엽서 등
- 준비물 : 간식, 생수, 수건, 등산차림, (하루코스)점심도시락 필수
- 참가비 : 없음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 지 역 | 목 적 지 | 주 소 | 주차비(1회) | 비 고 |
|-----|-----------|-------------------|------------------|-------|
| 동남산 | 불곡 입구 | 경주시 인왕동 180-3 | | |
| | 탑곡 입구 주차장 | 경주시 배반동 1132-69 | | 버스 가능 |
| | 탑곡 옥룡암 | 경주시 배반동 1114 | | |
| | 보리사 입구 | 경주시 배반동 1132-60 | | 버스 가능 |
| | 보리사 | 경주시 배반동 산 66-1 | | |
| | 산림환경연구원 | 경주시 남산동 725-2 | | |
| | 화랑교육원 주차장 | 경주시 남산동 830-5 | | 버스 가능 |
| | 통일전 주차장 | 경주시 칠불암길 6 | 무료 | 버스 가능 |
| | 남산리 탑 | 경주시 남산동 226-2 | | |
| | 염불사지 | 경주시 칠불암길 125 | | |
| 북남산 | 사마소 | 경주시 교동 89-1 | | |
| | 월정교 주차장 | 경주시 천원2길 11 | 유료(미정) | 버스 가능 |
| | 상서장 주차장 | 경주시 인왕동 276-3 | 무료 | 버스 가능 |
| 서남산 | 오릉 주차장 | 경주시 탑동 231-1 | 대 2,000, 소 1,000 | 버스 가능 |
| | 월암고택 | 경주시 식혜골길 35 | | |
| | 나정 | 경주시 탑동 700-1 | | |
| | 양산재 주차장 | 경주시 남간길 37-10 | 무료 | 버스 가능 |
| | 일성왕릉 | 경주시 남간길 99 | | |
| | 포석정 주차장 |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 대 4,000, 소 2,000 | 버스 가능 |
| | 지마왕릉 주차장 | 경주시 배동 483-1 | | |
| | 삼불사 주차장 | 경주시 포석로 692-25 | | |
| | 서남산 주차장 | 경주시 포석로 647 | 대 4,000, 소 2,000 | 버스 가능 |
| | 악수골 입구 | 경주시 포석로 530 | | |
| | 황금알오리식당 | 경주시 포석로 508 | | 버스 가능 |
| | 악천오리식당 | 경주시 포석로 482 | | 버스 가능 |
| | 용장리 주차장 | 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 | 대 4,000, 소 2,000 | 버스 가능 |
| | 틈수골 |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734-1 | | |
| | 용산서원 | 경주시 포석로 110-34 | | 버스 가능 |
| 남남산 | 열암곡 주차장 |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299 | 무료 | 버스 가능 |



남산은
신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며,
신라 역사의 종말을 상징하는 곳이다.

남산 속
바위 속에는
부처와 보살이 머물며
이 땅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신령스러운 땅이다.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

慶州南山研究所